

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 '첫 우승' 야심

네덜란드에 극적 역전승... 스페인과 15일 운명의 한판 최고 리그로 평가 받지만 국제대회 우승과 거리 멀어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라고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과 인연이 별로 없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데다 흥행면에서는 대성공을 이루고 있다. 최고의 리그다. 잉글랜드는 그렇지만 국제 대회에서는 우승과 거리가 멀었기에 '우물안 개구리'라고 조롱받기도 했다.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22번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정상에 선 것은 자국에서 열린 1966월드컵 대회 딱 한번 뿐이었다. 또 유럽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이제까지 16번이나 개최됐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한번도 없다.

이렇던 FIFA 랭킹 5위 잉글랜드가 11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유로2024 4강전에서 네덜란드(7위)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이다. 잉글랜드는 처음으로 본선에 나선 1968년 이탈리아 유로대회부터 11차례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2021년에 열린 유로 2020에서 준우승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유로 2020에서는 이탈리아에 패해 우승을 놓쳤다.

이번 대회 결승 상대는 우승 후보 프랑스

를 제압하고 올라온 '무적함대' 스페인이다. 두 팀의 마지막 일전은 15일 오전 4시 베를린의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킥오프한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8년째 이끄는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 필 포든(맨체스터 시티) 등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모여 개막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으나 정작 경기력이 시원치 않았다.

조별리그 C조에서 1승 2무로 조 1위를 차지했지만 3경기에서 2골을 넣는 데 그쳐 자국 팬, 축구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토너먼트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은 보이지 못했지만 선제 실점으로 끌려가면서도 승부를 뒤집는 끈질긴 축구를 선보이며 결승 무대를 밟는 데 성공했다.

16강, 8강에 이어 이날 네덜란드와 4강전에서도 잉글랜드는 상대가 먼저 골을 내줬다. 잉글랜드 전반 7분 사비 시몬스에게 선제골을 빼앗겼으나 9분 뒤 톱킥 스트라이커 케인의 활약 덕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케인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하던 중 톱킥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1-1 팽팽한 균형이 지속된 가운데 양 팀은 공격적인 축구로 맞붙었다. 후반 20분 네덜란드 중앙수비수 버질 판 다이크리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올리왓킨스(가운데)가 11일(한국시간) 유로2024 네덜란드와 4강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버풀)의 득점 기회를 조던 픽포드 골키퍼(에버튼)가 막아냈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이 후반 35분 필 포든과 해리 케인을 빼고 톱과머(첼시)와 올리 왓킨스(아스턴 빌라)를 교체 투입했다. 이 교체카드는 어시스트와 결승골을 뽑아낸 '신의 한 수'였다. 왓킨스는

올 시즌 EPL에서 19골 13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후반 4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파머로부터 공을 받은 왓킨스는 등을 진 채 터닝 슈트로 오른발로 낮게 깔아 차 버져 비터성 결승골로 연결시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놀라운 밤을 선사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날 네덜란드전 승리가 자신의 축구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NBA, 미디어 계약 105조 원 '대박' 역대 최장·최고

미국프로농구(NBA)가 역대 최장기간에 최고 금액의 미디어 계약을 체결했다.



아담 실버 NBA 커미셔너. AP=연합뉴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NBA가 11년 동안 총 760억 달러(약 105조 2220억 원)에 이르는 미디어 계약을 체결했으며, 리그 이사회 승인만 남았다고 1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NBA 역사상 계약 기간과 총액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번 계약은 2025-26시즌부터 발효된다.

경기 중계는 기존 ESPN과 ABC에서 계속되며, NBC와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일부 경기가 중계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이 계약으로 팀당 샐러리캡(연봉 상한총액)이 최대 10%까지 매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30년대 중반에는 연봉 1억 달러를 받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 25년 동안 방송권 패키지의 총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샐러리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연봉도 증가했다.

1998-99시즌 NBC-티너와의 4년간 26억 달러 계약 당시 샐러리캡은 팀당 3000만 달러였고, 평균 연봉은 약 250만 달러였다. 2023-24시즌 샐러리캡은 1억3400만 달러, 평균 연봉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초대형 계약 성사로 NBA는 프로농구팀이 없는 라스베이거스와 시애틀, 캐나다의 몬트리올-밴쿠버 등에서 팀을 창단할 수 있는 동력도 얻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빙속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소속팀·수입 없는 상태였다"



헝가리로 귀화한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민석이 현지에서 헝가리 선수들과 함께 지상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3년 자격 정지 쇼트트랙 문원준도 동행 확정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25)이 결국 헝가리로 귀화했다.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석과 쇼트트랙 문원준, 두 명의 선수가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귀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서 음주운전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며 "당시 일을 후회하고 있으며 그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하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징계로 인해 소속 팀도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받는 체육연금은 국적이 바뀔 경우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김민석과 문원준은 올 초 헝가리 귀화를 결심했으며 2월 헝가리로 이동해 현지에서 훈련하면서 귀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는 2025년 5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0-11월에 열릴 예정인 2025-2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2026 동계올림픽 출전을 노려볼 수 있

었다. 그러나 김민석은 전 소속팀 성남시청과 계약 만료 후 제대로 된 빙상 훈련을 하지 못하던 차에 헝가리 빙상 대표팀 한 국인 지도자 이철원 코치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아들였다.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간판 선수로 활약하던 사오린 산도르 류, 사오양 류 형제가 2022년 중국으로 귀화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헝가리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민석과 문원준의 귀화를 추진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Volvik
COND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